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장단 인사
사무국장 묘인·사업국장 탄덕 스님


묘인 스님


탄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4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묘인 스님, 사업국장에 탄덕 스님을 임명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사무국장 묘인 스님은 법등 스님을 은사로 1998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화엄탑사 주지를 역임했다.

사업국장 탄덕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사미계를 수계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선센터 총무, 직할교구 백련암 총무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천불사 주지 인경 스님
'2017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천안 천불사 주지 인경 스님〈사진〉은 10월 19일 KBS공개홀서 진행된 '2017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인경 스님은 충남 청소년 쉼터를 설립하여 20년간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해 왔으며,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위문행사, 불우 청소년 장학금 지급,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등 4억 6000여 만원을 사회에 환원해왔다.

노덕현 기자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봉행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 오백나한을 기념하는 오백나한대재가 10월 22일 오백전에서 열렸다.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주지 연광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수행자가 진정한 '나한'"이라며 "오백나한대재는 오백나한의 수행의 가치를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다짐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증심사 나한전(광주시 유형문화재 13호)은 1443년 김방에 의해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09년에 다시 지은 전각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다. 한국전쟁 때 사찰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으나 오백나한전만 화마의 피해를 입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돼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국대 구성원·지역민 위한 도량 만들 것"

Interview

동국대 신임 정각원장 묘주 스님



"제가 동국대 80학번입니다. 그동안 모교의 품안에서 학업 연구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번에 동국대 정각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 같은 모교의 은혜를 보답하고 잘 회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임명해주신 이사장 지광 스님과 총장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정각원이 학내 구성원들의 좋은 신행 중심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24일 동국대 정각원장에 임명된 묘주 스님〈사진〉은 임명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묘주 스님은 정각원이 동국대 학생·교직원 등 구성원들을 위한 신행 도량인 만큼 구성원들의 신행 진작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0월 24일 임용장 수여
기존 프로그램 활용하며
경전 독송 등 확대 계획
혜광사 신축에도 힘쓸 것

"그동안 정각원은 상아탑에 걸맞는 지적이면서 유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업무와 프로그램을 자세히 파악하고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독송이나 천수다라니·광명진언 염송, 참선 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드려고 합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정각원에 자주 찾아와 부처님께 예경드리고, 잠시 수행·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 정각원이 중구 시민과 불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목요법회와 신행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운영하며,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도 묘주 스님의 계획이다.

또한, 묘주 스님은 임명식에서 총장 보광 스님이 당부한 비구니 수행관 혜광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 혜광사는 건물 노후화로 곳곳에 균열이 생겨서, 비구니 학인스님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다.

신임 정각원장 묘주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불교학과 인도불교전공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쳤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전북 익산 연국사 주지다.

한편, 묘주 스님의 임기는 11월 1일부터 2년 간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매듭솜씨, 불교여성광장 위해 재능기부"
성낙윤 선생, 11월 8일부터 오색 매듭 염주 솜씨전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수행의 일환으로 매듭을 지어왔습니다. 보다 좋은 일에 매듭작품이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대중에 선뵈는 솜씨전을 열게 됐어요."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아리수에서 성낙윤 선생의 솜씨전을 개최한다. 성낙윤 선생은 40년 넘게 매듭을 비롯해 각종 수공예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공예가다.

성낙윤 선생은 10월 24일 인사동에서 열린 간담회서 "오색 매듭 염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밤 1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엮었다. 한달에 3~4개씩 정성을 다한 것들을 모아 마련한 기금을 불교여성광장 건립에 회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선생은 1975년 일단지에서 매듭장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인간문화재 최은순 씨에게서 매듭을 배웠다. 역시 인간문화재 김점순 씨에게 길쌈을 배우고, 일본 동경 세이쥬 공예학원도 나왔다.

강남 봉은사를 다니는 그녀는 아침에 향을 켜고 천수경을 외며 하루를 시작한다.

"작업 삼매가 바로 수행과 같습니다. 요즘 불구점에는 중국산 염주 등이 많은데 작은 것부터 불자들이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공예 작업 중인 성낙윤 선생.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 2017 기자상 후보작 접수
11월 13일까지, 불교언론인 장학금도

한국불교협회(회장 김현태)는 11월 6~13일 2017년도 한국불교기자상 후보작을 접수한다. 접수대상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내 보도된 기사로, 담당기자는 한국불교기자협회 소속 회원사 정회원이어야 한다.

시상부문은 △대상(선원빈기자상) △기획·해설부문 △취재·보도부문 각 1명이다. 출품지원서에 본인 또는 정회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와 함께 보도 관련자료 각 3부를 한국불교기자협회 사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11월 21일경 진행되며 심사종료 즉시 수상작이 발표된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또한 '2017 불교언론인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한다. 정회원·명예회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와 그 직계자손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는 초·중학생 30만원과 고교생 50만원(각 1명)이 주어진다. 단, 본인 장학금(대학원 석·박사과정)은 올해 선발하지 않는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시상식은 12월 4일 열리는 불교기자협회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중국 스님들 월정사서 수행체험
종단협, 10월 23~30일 韓中수행문화교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10월 23~30일 평창 월정사 일원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부속사업 일환으로 한중(韓中) 수행문화체험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국불교협회 국제포교사 36명(비구 19·비구니 16)은 먼저 4박 5일간 월정사에 머물며 △좌선 △발우공양 △연등 만들기 △탑돌이 △한국불교 강의 △좌담회 △산내암자 탐방 등을 체험했다. 이어 27일부터는 서울 봉은사와 관문사, 부산 삼광사, 경주 불국사 등 성지순례 및 국내명소를 탐방했다.

윤호섭 기자

법왕사, 정무 대종사 다례재 봉행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10월 22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원공당 정무 대종사 6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주호영 국회의원(정각회장), 문중스님들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실상 스님은 "생전 은사스님은 아무리 가람수호에 바빠도 정법포교에 전념하라는 유지를 남겨셨다. 큰스님의 유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추모 다례재를 봉행한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재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는 10월 16일 태평양 전쟁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21,709위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정산당 청봉 대종사, 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월인 대종사, 대한불교화엄종 종정 엄산대 종사, 대원불교조계종 종회의장 덕오 대종사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 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